

## 육계 의무자조금 농가에 실익 돌아올 수 있기를...



▲ 지부 창립을 통해 회원 단합을 이끌어낸 김훈겸 지부장

**대** 한양계협회 공주시지부(지부장 김훈겸)가 지난달 15일 공주농업기술센터에서 60여명의 회원 및 관련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공주시는 충청남도 15개 시군들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남동쪽으로는 계룡산자락이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에는 차령산맥이 놓여져 있고 금강이 동서방향으로 관류하고 있어

풍부한 수자원과 청정한 지역을 배경으로 농업이 발달되어진 고장이다. 특히, 양계산업도 채란과 육계가 균형을 이루면서 안전한 양계 산물 생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공주시 지역의 육계사육 규모는 200여만수로 99%가 계열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창립된 공주시부는 34명의 회원이 가입할 정도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회원들의 총 사육규모는 170만수에 이르고 있다.

공주지역 양계인들은 지난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거친 폭설피해로 인한 악몽을 잊을 수 없다. 당시 상당수의 계사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졌고, 보상조차 충분히 받지 못해 전업을 하는 농가들도 늘어났다. 2004년에는 바로 인근에 있는 천안과 아산까지 HPAI가 확산되면서 전 인력을 동원해 방역작업을 한 기억이 생생하다.

공주시지부는 최근 HPAI와 눈 피해로 양계농가들이 점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계인들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생각이 지역 양계인들 사이에 확대되면서 이번에 창립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양계 의무자조금 사업의 활성화 움직임이 육계인들을 한 자리에 모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난 10월에 치러진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에 앞서 자조금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때 참여율과 열기가 높았고, 대위원 선출 시에도 대부

분의 육계인들이 참여하여 직접 대의원을 선출한 바 있다. 더욱이 지난 11월 24일 여의도에서 양계인들이 생존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하면서 우리도 뭉치면 못할 일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사천리로 지부 설립을 이루게 된 것이다.

공주시 금성동에서 7만수의 육계를 사육하고 있는 김훈겸 초대 지부장은 앞으로 공주지역을 질병없는 곳으로 만들고

안전한 닭고기를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하면서, 회원들도 질병방역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공주지부는 현재 육계인들 중심으로 모임이 구성되었으나 2006년도 사무실을 마련하고, 활동을 활발해지면 채란계까지 함께 동참시켜 공주시지부의 위상을 더욱 높여갈 계획을 청사진으로 제시하였다. 지부 설립을 위해 노력해온 김훈겸 지부장, 김광수 총무는 앞으로 협회를 구심점으로 공주시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서비스로 보답할 것을 약속하였다. 특히, 감보로 백신, 웬 및 기자재 공급 등 아직 회원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



▲ 지난 15일 개최된 창립기념 행사장면

#### ▶ 임원명단

지부장 : 김훈겸  
 총 무 : 김광수  
 이사(지역대표) : 박금수, 강신모, 이강구, 김종인  
 육계자조금 대의원 : 조광구, 김병화

하나 찾아 공급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2006년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육계의무자조금이 육계인들에게 실익이 돌아 갈 수 있어야 진정한 자조금 사업이라 강조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욱 발전된 육계산업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김훈겸 지부장은 공주청년회의소 회장을 맡고 있어 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창립총회에는 장재성 육계분과위원장, 최운용 충

남도의회 의원, 정용길 농업기술센터 소장, 본회 이종길 전무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이종수 논산지부장, 송태희 부여지부장, 최길영 화성지부장, 박태원 홍성지부장, 김종철 전 서산지부장 등이 참석하여 공주지부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 창립기념식에 참석한 내외빈(좌부터 박태원(홍성), 이종수(논산), 송태희(부여) 지부장, 최운용 충남도의회의원, 김훈겸 지부장, 장재성 육계분과위원장, 이종길 본회 전무, 김종철 전 서산육계지부장)